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23호> 2018년 4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5월에는 세계온천지 서밋 및 벳푸 아르헤리치 음악제가 개최됩니다. 아르헤리치 음악제는 20주년 기념으로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을에는 국민문화제, 전국 장애인예술문화제가 오이타에서 개최되는 한편 브라질현인회 65주년 기념식전 및 대만 플로럴 세계박람회 개최 등에 맞춰 오이타에서도 방문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풍성한 오이타의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오이타현 소식>

### 세계온천지 서밋 관련 이벤트 소개

5월 25일부터 27일에 걸쳐 벳푸시에서 개최되는 ‘온천현 오이타」 세계온천지 서밋’의 분위기를 시민분들도 느끼실 수 있게끔 관련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세계온천지 관광물산전》

서밋 참가국 및 국내 참가 지자체 등의 특산물 판매, 시식, 관광 PR 부스를 설치하는 등 스테이지 이벤트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시 : 5월 26일 (토) ~ 17일 (일) 11:00~17:00 ※입장 무료

장소 : 비콘 플라자 컨벤션홀 (벳푸시 야마노테마치 12-1)

#### 《ONSEN 가스트로노미 워킹》

온천지만의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고, 지역의 풍부한 자연과 역사 문화를 둘러보고 온천에 ‘몸을 담구며 체험하는 ‘ONSEN 가스트로노미 워킹’을 서밋 기간 중 벳푸시와 나카츠시에서 개최합니다.

#### 【ONSEN 가스트로노미 워킹 in 벳푸】

개최일 : 5월 26일 (토)

장소 : 묘반온천~간나와온천 (지옥찜 등 온천지 벳푸만의 음식과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코스)

정원 : 200명 (사전 접수 필요) / 참가비 : 3,000엔

문의처 : 벳푸시 관광과(0977-21-1128)

#### 【ONSEN 가스트로노미 워킹 in 나카츠】

개최일 : 5월 27일 (일)

장소 : 혼야바케이마치 아오노도몬 주변 (일본유산 야바케이의 음식과 자연, 역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코스)

정원 : 200명 (사전 접수 필요) / 참가비 : 3,800엔

문의처 : 나카츠 야바케이 관광협회 (0979-64-6565)

## 오이타시 벳꽃 개화

오이타지방기상대는 지난 3월 23일 오이타시에서 벳꽃(왕벳나무)이 개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년보다는 1년 빠르고, 작년보다는 14일 빠른 개화라고 합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진 월말에 걸쳐 현내 벳꽃 명소는 꽃놀이를 하러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23호> 2018년 4월 발행

## 오이타 100% 즐기기! 규슈 올레 사이키 · 오뉴지마 코스



올해로 개장 6주년을 맞이한 규슈 올레가 기존 19코스에서 오이타현 사이키 · 오뉴지마 코스와 후쿠오카현 지쿠호 · 가와라 코스가 더해져 총 21곳이 되었으며, 오이타현은 고코노에 · 야마나미 코스, 오쿠분고 코스, 벳푸 코스와 함께 총 4곳의 올레 코스가 조성되었습니다. 바다와 산, 마을 풍경이 조화를 이루는 사이키 · 오뉴지마 코스는 과거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던 산길을 올레길로 복원하는 등 자연을 해치지 않고 옛 것을 보존하고 현대와 어우러지는 올레 정신을 반영한 코스라고 합니다.

봄기운 가득한 따뜻한 날씨 속에 사이키 · 오뉴지마 코스를 걷고 왔습니다. 오뉴지마는 사이키항에서 700m 떨어진 표주박 모양의 섬으로, 한 때 5천 명 가까이 거주했을 정도로 큰 섬에 속했지만 현재는 7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입니다. 페리를 타고 호리키리항에 도착하면 올레 출발지점인 쾅거루 광장이 보입니다. 여기서 출발해 해안도로를 따라 걸다보면 태풍시 배를 정박시키던 작은 만인 후나카쿠시가 나옵니다. 이 곳에 '바다의 작은 길'이라는 제방길이 있는데 코스 포인트 중 하나로 양 쪽에 투명한 바다를 끼고 걸으니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어서 상큼한 귤 향기가 풍기는 귤 농장이 나옵니다. 마침 작업을 하시던 주민분이 귤을 나눠주셔서 한 손에 귤을 쥐고 기분 좋게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민관 등 코스 중간 중간 마을 주민분들이 마련해주신 간식거리가 지칠 때 쯤이면 나타나 기운돋게 해줬습니다. 보상없는 오르막은 없다는 올레길 모토처럼 산을 올라 도착한 하늘 전망대에 아름다운 경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 돌린 뒤 다시 내려와 출발 지점이자 중간 지점인 쾅거루 광장에 도착해, 마을 주민들분들이 준비해주신 사이키의 향토요리 아마베지루와 주먹밥으로 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생선 완자와 야채가 한가득 들어간 아마베지루는 담백한 국물이 일품이었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걸어가자 A루트와 B루트의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다시 산을 올라야하는 A루트는 중,상급자용, 바닷길을 끼고 걷는 B루트는 중급자용입니다. A루트는 사이키시와 사이키만을 360도 둘러볼 수 있는 토오미야마 전망대가 있으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그네와 종, 나무 의자가 운치를 더해줍니다. B루트에도 절경 포인트인 바다 전망대가 있습니다. 오히려 높이가 낮아서 바다를 더 가까이서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코스 후반부에도 곳곳에서 주민분들이 간식거리와 함께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덕분에 힘든 길도 즐겁게 걸어 어느새 피니쉬 지점인 이시마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이키 · 오뉴지마 코스는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귤나무와 투명한 바다, 푸른 산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마치 제주도를 연상케 하기도 하며, 섬주민들의 따뜻한 환대까지 더해져 친근하면서도 포근한 올레길이었습니다.

